고객감동경영 해법, 책임운영기관에서 찾는다!

2006년 중앙행정기관 최초, 책임운영기관으로 거듭나는 특허청

특허청은지식재산의창출 · 권리화 · 활용을촉진하고보호를강화함으로써기술혁신과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심사처리기간단축등12대중점정책을추진,「2007년 지식재산세계6강」에진입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와아울러2005년도정부혁신평가1위의전통을이어갈수있도록특허행정혁신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하여혁신을조직문화로정착시킨다는계획이다.

특히, 금년5월 책임운영기관전환에따라, 고객감동경영을선포하고특허청에서제공하는모든서비스에대하여출원인 · 연구기관등을중심으로구성되는「특허행정체험단」을 가동하여고객중심으로제도와절차를개선하여나가면서, 세계에서제일 빠른특허심사, 국가R&D의 효율성제고를위한특허정보의활용확산에역량을집중키로하였다.

또한, 그동안R&D 투자대비특허성과가 미미한대학 · 공공연구기관의지식재산 창출및 관리역량강화를집중 지원하고, 개인 · 소기업등경제적약자와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지식재산창출기반강화 및 특허기술의사업화촉진에도정책의우선순위를두기로하였다.

나아가우리나라의기술력과브랜드이미지의상승으로외국과의지재권분쟁이빈발함에따라우리기업의해외특허획득 및 지재권분쟁대처역량강화를지원하는 등의 지재권분야의국제협력사업도적극 추진키로하였다.

해외 특허, 이제 무료로 검색하세요

해외특허 무료서비스 본격 실시 밝혀

연구개발에있어해외특허의활용이보다더 손쉬워질것으로보인다.

특허청은올해부터산업재산권무료검색서비스인 KIPRIS(www.kipris.or.kr)를 통하여미국, 일본, 유럽등의해외특허문헌전문(全文)서비스를본격 실시한다고밝혔다.

KIPRIS 서비스는그동안해외특허문헌의경우 그초록(요약)만을제공하여왔으나, 최근해외특허문헌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작년12월부터 시범실시를거쳐올해2월 해외특허전문(全文)서

영세 개인발명가도 심판 · 소송비용 지원

특허법률구조사업 대폭확대 시행

특허청은지식재산권을보유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이 특허분쟁에휘말린경우 심판 및 소송비용을지원해주는특허법률구조사업을대폭확대실시키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기업등은시간과비용을투자하여획득한지식재산권을침해당하고도경제적으로어려운형편때문에제대로대응하지못해피해를보는사례가많이있으며, 특히특허분쟁의경우분쟁당사자가대기업또는외국기업일경우가많아어려움이가중되는경우가적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사회적취약계층과소기업의지식재산권보호를위하여특허청은2001년부터특허법률구조사업을시행해오고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관련예산이조기에소진될정도로사업에대한관심이증가되어왔다.

올해부터는늘어난수요를반영하여작년 1억원이었던지원예산을7억 6천만원으로대폭확충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특정한사회적취약계층이외에도경제적사정으로소송수행이곤란한월평균수입220만원이하의개인발명가도지원받을수있도록지원대상을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이등록되어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영세개인발명가이다. 모든특허법률사무소에신청이가능하며대한변리사회나전국지역지식센터(32개)에서도신청할수있다.

신청에대해서는대한변리사회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공익적파급효과, 신청인의경제적사정, 승소가능성여부등을 감안하여심판또는소송수행여부및지원규모등을결정하게되는데, 심판에대해서는200만원, 소송에대해서는5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하며, 분쟁에서승소했을경우해당대리인에게지원금액의50%가성공사례금으로지급된다.

비스를본격실시하게됐다고특허청관계자는전했다.

이로써해외특허전문검색에있어각국특허청홈페이지를각각접속해야하는이용상의번거로움이사라지게되었으며, 홈페이지마다상이한검색방법, 낮은접속속도등에따른이용상의불편도해소될것으로보인다.

또한, KIPRIS 서비스를통하여국내 · 외특허를동시에검색할수있게되어특허정보검색의정확성과효율성이높아져연구개발활동의효율성또한대폭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